

2023. 2. 1.(수) 조건용
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월 3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
 공정경제담당관

공정경제담당관	최원규	2133-5360
소비자보호팀장	정현영	2133-5374
담 당 자	김태극	2133-5375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서울시,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비 최대 100% 지원...2월 1일부터 신청

- 가정용·아동용 섬유와 가죽 제품, 어린이용 장신구와 가구 등 실생활+유아동 밀접 9종
- 건당 10만원~350만원 소요되는 검사비 30~100% 지원, 지난 7년간 2,383건 지원완료
- 안전인증 의무없으나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식별이 어려운 제품의 안전검사 확대
- 올해부터 검사기관 2곳→3곳, 신청 연 1회 → 3회로 늘려 소상공인 편의성 높여

- 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품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의 편의성 및 참여확대를 위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. 첫 신청일은 2월 1일(수)부터다.
- 안전성 검사란 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’과 ‘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’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,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.

<가정용·아동용 섬유 및 가죽 제품, 어린이용 장신구 및 가구 등 실생활+아동밀접품목 9종 >

-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①가정용 섬유제품(의류·가방 등) ②가죽제품(구두·장갑 등) ③접촉성 금속장신구(반지·목걸이 등) ④아동용 섬유제품(의류·모자 등) ⑤어린이용 가죽제품(가방·신발류 등) ⑥어린이용 장신구(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)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(천 기저귀·턱받이 등) ⑨완구 등 총 9종이다.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·어린이용 제품으로 신체 접촉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.

- 소상공인 제품 안전검사대상은 세가지 유형이 있다. 첫째 의무적으로 검사·신고 후 판매해야 하는 안전확인 제품, 둘째 판매자 스스로 검사·안전표시 후 판매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, 셋째 별도 검사없이 판매가능한 안전기준준수 제품이다. 서울시는 안전검사 의무대상 외 제품에도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용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.
 - 시는 특히 안전인증 의무가 없는 소상공인 제품(학생복,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)의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- 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유통되도록 2016년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품목에 따라 30%~100% 지원하고 있다. 현재까지 지원한 검사는 총 2,383건에 이른다.

〈2023년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 품목별 지원내역〉

구 분	품목 및 지원율	
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(100%)	품 목	① 가정용 섬유제품, ② 가죽제품,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
	지 원 율	서울시 50% 지원, 공인시험기관 50% 할인, 소상공인 0%
공 급 자 적 합 성 어린이제품 (80%)	품 목	④ 아동용 섬유제품(만3세~만13세 이하) ⑤ 어린이용 가죽제품(만13세 이하) ⑥ 어린이용 장신구(만13세 이하), ⑦ 어린이용 가구
	지 원 율	서울시 30% 지원, 공인시험기관 50% 할인, 소상공인 20%
안전확인 어린이제품 (30%)	품 목	⑧ 유아용 섬유제품 (36개월 미만), ⑨ 완구
	지 원 율	서울시 30% 지원, 소상공인 70%

- 검사비 신청은 2월 1일(수) 오전 9시부터 시와 협약한 ‘한국의류시험연구원’(☎3668-3036), 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’(☎2102-2741), ‘FITI시험연구원’(☎6985-5538, 3299-8062) 중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.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.
-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2곳의 검사기관에 ‘FITI시험연구원’을 추가해 검사기관을 총 3곳으로 늘렸고, 신청기간도 연 1회에서 2월, 6월, 9월 총 3회로 확대해 계절집중상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.
- 박재용 서울시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은 “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2023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계획

붙임 2023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계획

□ 2023년 소상공인 안전검사(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) 비용 지원

○ 지원품목 : 9개

-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어린이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어린이용 가구 ⑧ 유아용 섬유제품 ⑨ 완구

○ 품목별 지원율

구분	품목	세부품목
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(100%)	①가정용 섬유제품	의류, 학생복, 한복, 신발류, 가방, 양말, 장갑, 이불 등
	②가죽제품	의류, 구두, 가방, 침구류, 장갑, 신발류 등
	③접촉성 금속 장신구	반지, 목걸이, 팔찌, 장식용 체인, 귀고리, 펜던트, 발찌, 손톱장식품, 피어싱, 배꼽찌, 손목시계, 시계줄, 머리장식품 등
	지원사항	서울시 50% 지원, 공인시험기관 50% 할인, 소상공인 0%
공급자 적합성 어린이제품 (80%)	④아동용 섬유제품 (만3세~만13세 이하)	의류, 슈트, 스웨터, 재킷, 코트, 다운의류, 커버올스, 점퍼, 모자, 숄, 머플러, 넥타이, 베스트, 조끼, 스카프, 앞치마, 토시, 신발 (운동화, 장화류, 슬리퍼) 등
	⑤어린이용 가죽제품 (만13세 이하)	의류, 구두, 가방, 침구류, 장갑, 신발류 등
	⑥어린이용 장신구 (만13세 이하)	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(섬유, 합성수지, 금속 등)
	⑦어린이용 가구	어린이용 가구
	지원사항	서울시 30% 지원, 공인시험기관 50% 할인, 소상공인 20%
안전확인 어린이제품 (30%)	⑧유아용 섬유제품 (36개월 미만)	의류, 신발, 침구류, 신발류, 양말류, 장갑류, 모자류, 가방류, 신생아용품 (기저귀 커버, 천기저귀, 손수건, 턱받이, 손발싸개) 등
	⑨완구	완구
	지원사항	서울시 30% 지원, 소상공인 70%

소상공인 안전검사(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) 지원 현황

- ▶ 지원개시 : 2016. 5. 23.부터
- ▶ 추진배경 : 소상공인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
- ▶ 대상품목 : 가정용 섬유제품, 가죽제품,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 9개 품목
- ▶ 추진실적 : 2,383건('22년 462건, '21년 283건, '20년 200건, '19년 193건, '18년 122건, '17년 717건, '16년 406건)
- ▶ 운영절차 : 신청(소상공인) ➡ 접수 및 제품검사(공인시험기관) ➡ 개별통보(시험성적서)